

경기일보

2019년 09월 02일 (월)  
종합 01면



평화와 화합 'ART DMZ' Let's DMZ의 일환으로 지역연계 문화예술 프로젝트인 'ART DMZ' 1차 행사가 경기관광공사 주최로 지난달 30일부터 서울간 연천 호로고루 유적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아이들이 체험존 앞에서 손을 흔들며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고 있다. 1차에 이어 2차 행사는 오는 6일부터 서울간 김포 아드빌리지 앞광장에서 열린다. 김시범기자



인터뷰

정동채 Let' DMZ 조직위원장

### “DMZ 평화적 가치 전 세계에 알릴터”

“경기도가 Let' DMZ 사업으로 전 세계에 DMZ를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정동채 Let' DMZ 조직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연천에서 열린 'ART DMZ' 행사에 참가해 “Let's DMZ 행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와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ART DMZ를 비롯한 Let' DMZ 브랜드를 경기도의 대표적인 DMZ 축제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Let's DMZ 조직위원장을 수락했는데 이에 대한 남다른 의미가 있는지.

A 현재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평화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DMZ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DMZ를 품고 있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 평화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전 세계에 DMZ를 알리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첫 런칭하는 'Let's DMZ' 사업에 미약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조직위원장을 맡게 됐다.

Q 첫 행사로 연천에서 'ART DMZ'를 개최했는데.

A 경기도는 DMZ의 평화적 상징성을 매개로 접경 지역의 축제행사 및 문화자원과

연계해 'ART DMZ' 행사를 추진했다. ART DMZ는 연천, 김포 지역과 연계해 파주에 집중된 평화 관련 행사에 대한 가치 공유를 확대하는 지역문화예술 프로젝트로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평화 관광 브랜드를 형성해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자 한다.

Q DMZ 밀원에서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는데 취지가 무엇인지.

A 'Let's DMZ'는 DMZ 포럼, LIVE DMZ, DMZ 페스타, ART DMZ 등 4개 행사를 통칭하는 공동 브랜드로 학술·생태·공연·예술 등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해 경기도 DMZ 관련 대표 축제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Let's DMZ 행사를 통해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공유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Q 최근 DMZ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DMZ,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은.

A DMZ는 원자히 보전돼야 한다. 예컨대 유네스코 북한유산 등재를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 일부는 남북이 함께 참여해 평화와 화해의 문화공간으로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이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대, 평화공업단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선호·김혜령기자



경기도립민중추진회 주최 교육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 민주주의 체험 캠프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립민중추진회 주최,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4주간의 캠프가 끝나면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주간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이진우 기자)

## 역사적 현장 몸소 체험하며... 민주주의 가치 새기다

경기도립민중추진회 주최 교육, 4주간 여정 시작

국내 민주주의 관련 역사 장소 체험학습을 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가 31일(월)부터 1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경기도립민중추진회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를 찾아 그 가치를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4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40여 명으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4주간의 여정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를 주제로 4주간의 여정 기간에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라는 뜻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캠프는 4주간의 여정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를 주제로 4주간의 여정 기간에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라는 뜻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캠프는 4주간의 여정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를 주제로 4주간의 여정 기간에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라는 뜻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캠프는 4주간의 여정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를 주제로 4주간의 여정 기간에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라는 뜻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캠프는 4주간의 여정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를 주제로 4주간의 여정 기간에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라는 뜻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캠프는 4주간의 여정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를 주제로 4주간의 여정 기간에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라는 뜻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기도립민중추진회 주최 교육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 민주주의 체험 캠프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립민중추진회 주최 교육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 민주주의 체험 캠프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립민중추진회 주최 교육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 민주주의 체험 캠프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초중고 학생부터 고대 어르신까지 참여하며 세대 허물 교육... 뜻깊은 시간  
3-1운동기념관·광주나눔의 집·정신감각동 등 방문해 민주주의의 가치 교육  
"교과서에서 보지 못하는 역사적 사실, 오직, 도면에서 시뮬레이션 체험과 여정"

이 캠프는 4주간의 여정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를 주제로 4주간의 여정 기간에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라는 뜻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캠프는 4주간의 여정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를 주제로 4주간의 여정 기간에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라는 뜻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캠프는 4주간의 여정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를 주제로 4주간의 여정 기간에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라는 뜻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캠프는 4주간의 여정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를 주제로 4주간의 여정 기간에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라는 뜻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캠프는 4주간의 여정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를 주제로 4주간의 여정 기간에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라는 뜻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캠프는 4주간의 여정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를 주제로 4주간의 여정 기간에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라는 뜻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캠프는 4주간의 여정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를 주제로 4주간의 여정 기간에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라는 뜻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캠프는 4주간의 여정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를 주제로 4주간의 여정 기간에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라는 뜻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캠프는 4주간의 여정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를 주제로 4주간의 여정 기간에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라는 뜻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캠프는 4주간의 여정 '역사 속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를 주제로 4주간의 여정 기간에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주의의 보물 창고라는 뜻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